

연출가의 역할을 말아야  
「월간양돈」지는 양돈산업에서



이 규 은  
(한국양돈연구회장  
· 마니육종 상무)

창간 일곱 돌을 맞는 「월간 양돈」지의 관계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양돈계의 일원으로서 한국양돈연구회의 회원 모두가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돼지가 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제목의 활자 호수가 점점 커지며 좋게든 나쁘게든 관심과 화제의 대상이 된 것도 긴 우리나라 역사에서 살펴보면 겨우 지난 10여년 전부터의 일이었다.

식탁이라는 무대위를 생각해 보면 식물성, 동물성의 많은 출연자중에서 돼지고기는 오랫동안 끝에서 가끔 등장하는 엑스트라였는데 어느 틈에 단역급으로, 곧이어 조연급으로 대우를 받을만큼 지난 몇 년동안에 인기도 오르고 빨리 성장했다. 그렇게 인기를 얻고 성장함에는 수준높은 관중(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성원해 준 덕택이 크지만, 「월간 양돈」지가 창간 되면서 부터 좋은 연출가로서의 역할을 잘 해 주었기 때문에 더 실력을 키워온 점을 크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잡지의 기능은 지식과 정보제공을 비롯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독자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연배의 사람들은 6·25 동란중과 그 직후의 참으로 어렵던 때에 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학원」(學園)이나 「어린이 다이제스트」같은 월간지에서 용기를 얻고 꿈을 키웠던 일을 기억한다. 어려운 때에 사심없이 정성껏 좋은 내용의 책을 만들어 주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들이었고 한자도 빠짐없이 애독하고 아껴두었다.

우리 양돈계의 현상은 지금 쇠점의 호황에만 콧노래 부르고 있을 형편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인기와 덩치가 커진만큼 실력과 교양을 갖추었느냐 하는 점이다.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생산성 제고, 경영합리화와 양돈인의 프로의식, 유통구조의 원시성 탈피-실력을 키우고 정신차려야지 목전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개인 플레이가 많아진다면 큰일이 나게 되었으니, 지금이야말로 유능한 연출가가 더 바쁘게 소임을 다해야 할 때이고 그 연출가는 양돈협회의 「월간양돈」지인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알찬 내용과 신속·공정한 정보, 매끄러운 편집, 무엇보다도 정성이 깃든 잡지는 저절로 독자의 사랑을 받고, 부드러운 연출 솜씨로서 독자들 스스로 따라 오게 함으로써 우리 양돈계의 문제들도 밝은 쪽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많은 양돈인들이 호수가 붙어 나는 「월간 양돈」지를 차곡차곡 서가에 모아두고 그것을 보면서 양돈경영도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좋은 잡지 만들기에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